

노랫말에 담은 45년 恨과 설움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오는 24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한 공연 '오월어머니의 노래'가 펼쳐진다. 지난해 공연 모습. (ACC 제공)

“17살 고등학생이 된 재학이는 하복을 맞춰 놓고 입어보지도 못했어. 친구가 죽어 장례를 치르고 온다 했는데, 설마 그 어린애한테 총을 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정한 놈들이제. (중략) 엄마는 오래 오래 우리 아들 자랑을 할거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 널 보면 뭐라고 하지. 재학아! 엄마 안보고 싶었어?”

다시 만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설움이 절절한 이 곡의 제목은 ‘엄마 안보고 싶었어?’.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가 직접 쓴 가사에 5·18 당시 고립됐던 광주의 모습을 ‘바위섬’에 빗댄 곡으로 유명한 가수 김원중이 곡을 붙이고, 함께 불렀다.

45년이 흘렀지만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애달프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내 아들은 폭도가 아니라고” 한 줄의 노랫말 속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참상과 그 뒤에 남겨진 이들의 깊고도 긴 슬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올해도 그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온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토해내듯 부르는 노래가 다시 한 번 울려 퍼진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김상욱)이 제작한 ‘오월어머니의 노래’가 오는 24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쳐진다.

ACC, 24일 ‘오월어머니의 노래’
故 문재학열사 모친 김길자 여사등
15명의 어머니들 무대에 올라
각자 사연 담긴 15곡·합창 공연
6월 18일 일본 오사카서 공연도

이번 공연은 1980년 5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긴 세월을 견뎌온 오월어머니들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 그날의 희생과 낯을 기리고자 마련된 자리다. ACC는 지난 2022년부터 어머니들의 삶과 애환을 노랫말로 담은 곡들을 제작해 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부르는 공연으로 오월의 기억을 전하고 있다.

오월어머니 15명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사연이 담긴 개인곡 15곡과 합창곡 ‘5·18 어매’를 들려준다. ‘5·18 어매’는 “한 많은 사연 말도 못 한 채, 울어 예는 5·18 어매...”로 시작되는 곡으로, 민중가수 박종화 씨가 어머니들의 한을 담아 작사·작곡했다. 열다섯 번의 어머니는 김길자, 김옥희, 김정례, 김경자, 박유덕, 박행순, 박형순, 원사순, 이근례, 이명자, 이향란, 임근단, 임현서, 정동순, 추혜성 등이다.

우선 공연 1부에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노래’ 9곡이 무대에 오른다. 당시 주남마을 통장으로 마를

을 돌아다니며 위험을 알리다 계엄군의 총격에 상무관 30번 주검으로 돌아온 남편, 고(故) 선종철을 그리며 부르는 김옥희 어머니의 ‘30번 남자’가 공연의 막을 연다. 2부 공연에서는 동생을 잃은 ‘누이의 노래’ 1곡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노래’ 5곡이 이어진다. 동생 고(故) 박관현의 누나 박행순 씨가 ‘격정마세요’를, 고(故) 장재철의 어머니 김점례 어머니는 ‘재철아!’ 등을 노래한다.

국악인이자 배우인 오정해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대에 함께 올라 오월어머니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낭독한다. 관객들은 오 씨의 목소리를 따라 가슴 아픈 사연 하나하나를 마주하며,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어떤 희생 위에 놓여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 공연은 오는 6월 18일 일본 오사카에서도 펼쳐진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광주와 오사카 공연은 모두 ACC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상욱 ACC전당장은 “이번 공연은 이 땅의 평범한 어머니들이 겪은 비극을 예술로 승화한, 진실의 울림”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진실, 그리고 그 리움을 담아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CC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서 항상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이홉, 美 빌보드 매거진 표지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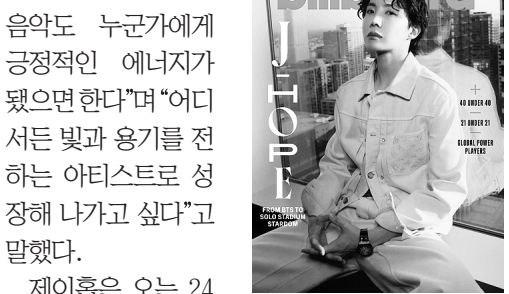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 매거진’ 5월호 표지를 장식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1일 밝혔다.

빌보드 매거진은 “제이홉은 압도적인 무대 존재감과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았다”며 “이는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를 소개

했다.

K팝 남자 솔로 가수가 빌보드 매거진 표지에 실린 것은 2012년 싸이 이후 두 번째다. 제이홉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2018년 특집호와 2021년 8월호 표지에 등장한 바 있다.

제이홉은 빌보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어릴 적 좋아했던 아티스트들로부터 받은 영감처럼 내



음악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됐으면 한다”며 “어디서든 빛과 용기를 전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제이홉은 오는 24~2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월드투어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창작 오페라 한 편 ‘천원의 행복’

곡성군·오류, 6월 12일 레저문화센터서 ‘조선에서 온 리콜레토’



창작 오페라 ‘조선에서 온 리콜레토’ 공연 장면. (오류 제공)

단돈 1000원으로 만나는 창작 오페라 한 편이 곡성을 찾아가다.

다양한 공연예술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감성을 해소해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과 공연예술기획사 오류는 오는 6월 12일 오후 5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창작 오페라 ‘조선에서 온 리콜레토’를 무대에 올린다.

베르디의 ‘리콜레토’를 우리말과 판소리 창법으로 풀어낸 창작 오페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지역 유통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작품이다.

원작은 바람둥이 공작을 중심으로 권력과 음모, 부성애를 그린 비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배경을 매관매직과 탐관오리가 들끓던 조선 말기로 옮겨왔다. 등장인물 역시 한국적인 색채로 재창조됐다. 방랑한 만토바 공작은 ‘변사또’로, 광대 리콜레토는 ‘꼭두’로, 저주를 내리는 몬테로네 백작은

‘박수무당’으로 바뀌었다. 우리말 대사와 판소리 창법, 전통 음악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낯선 서양 오페라의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전통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 판소리 창법과 성악이 어우러지며 이색적인 음악적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색감이 풍부한 한복 의상과 정교한 무대 연출이 더해져 시각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인다.

이야기의 흐름을 짚으며 관객과 극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는 연출로, 오페라 무대 위에 전통 마당극에서 느낄 수 있는 친밀한 매력을 펼쳐낸다. 관객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홍아람 오류 대표는 “전통 판소리 창법과 서양 오페라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점을 관객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곡성 군민 1000원), 인터파크·현장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I와 고대 인도 요가 경전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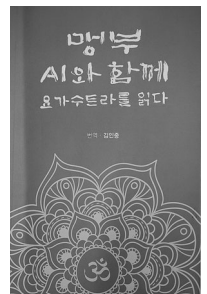
순천 출신 맹부, AI로 요가수트라 번역 ‘맹부 AI와 함께...’ 발간

수행자이자 시인철학자 맹부(본명 김인중)가 최근 고대 인도 요가 경전 ‘요가수트라’를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 펴냈다.

‘맹부 AI와 함께 요가수트리를 읽다’(육시준북스)는 인공지능을 매개로 번역을 했음에도 요가 경전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저자와 요가와 인연은 200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 따르면 “선인 요가원에서 읽었던 일본인의 요가수트라 한국어 번역본이 요가수트라를 처음 접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이다.

순천 출신의 저자는 20대에는 지리산에서 삶을 경험했고 90년대 중반에는 중국, 인도를 여행하며 옛 구법승들의 길을 따랐다. 96년부터 무등산 자락에서 현재까지 생활하며 수행과 철학공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책의 특징은 저자가 요가 철학 창시자 파탄jali와 3박 4일 가상 인터뷰 형식을 통해 전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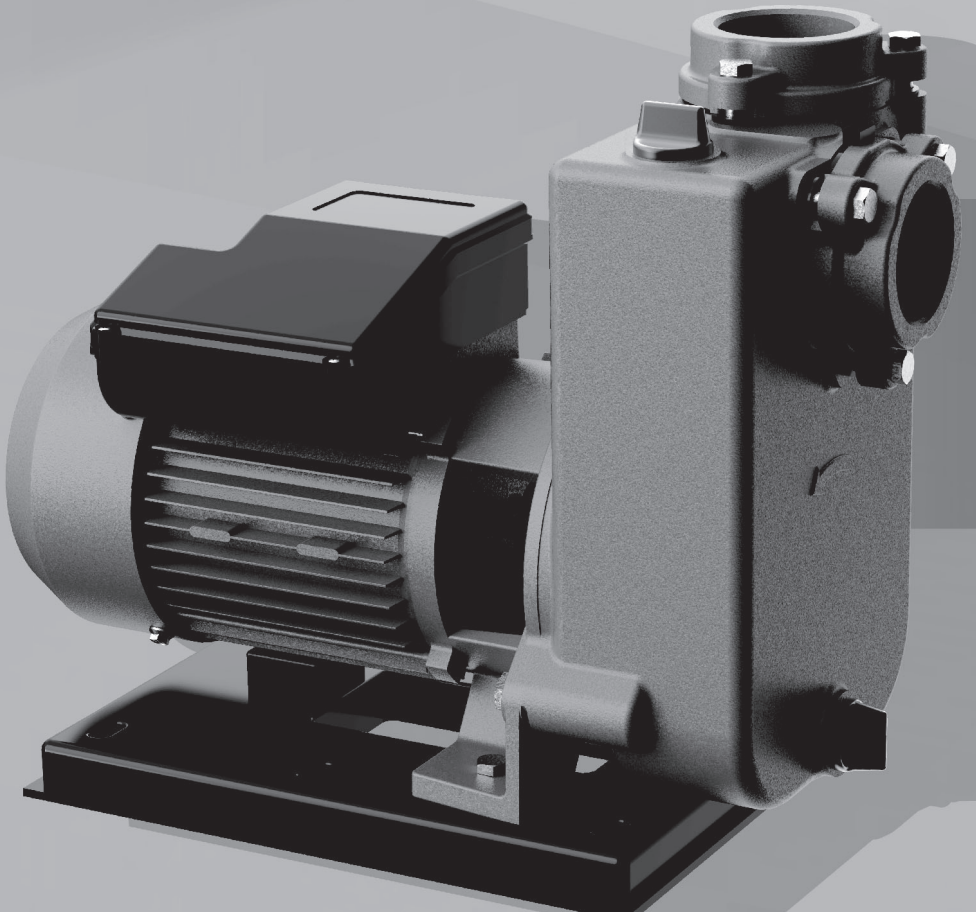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다는 점이다. 소설처럼 시작된 대화는 철학적 탐구로 이어지며 몰입감을 준다. 저자는 “AI가 제시한 번역문과 내 자신의 수행적 통찰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며 “지금까지 난해하게 느껴졌던 ‘요가수트라’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책에는 상키아 철학을 비롯해 삼매·삼아마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AI명상, 브레인 요가 등 새로운 흐름 외에도 철학과 기술, 수행과 사유의 경계를 넘나든다.

한편 맹부는 조선대에서 역사학, 전남대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을 연구했으며 현재 ‘소매직 & 마음행감·동명 살라’ 대표를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